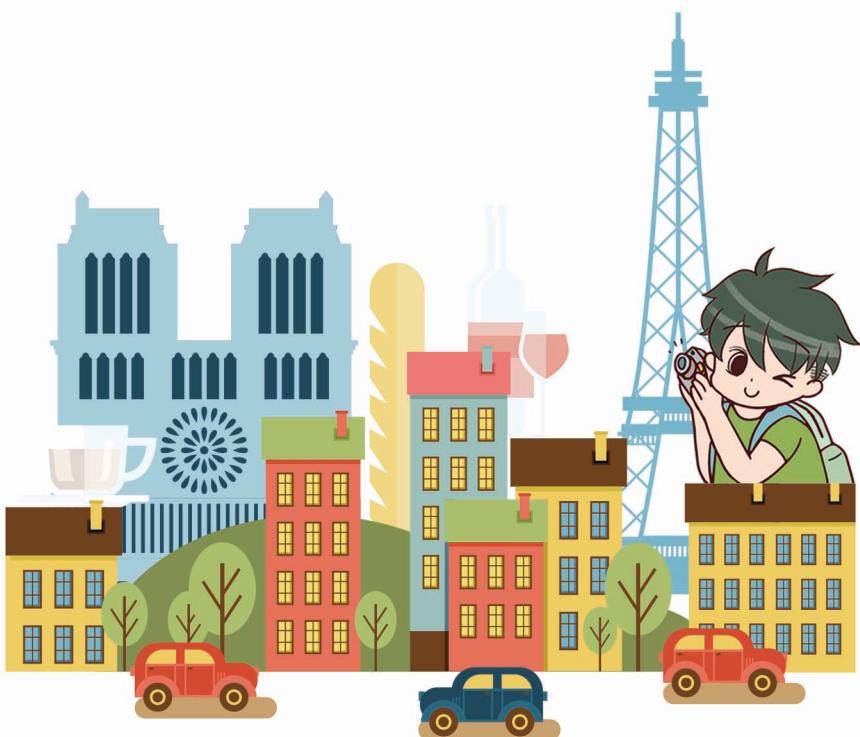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2025秋天
通卷 1089号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2025년 희년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contents

2025秋天
通卷 1089号

- 02 2025년 희년 기도문
- 03 목차
- 04 말씀읽기 · 말씀 다지기

성경 © 한국천주교종교협의회

- 30 티노생각
- 32 탱이와 아치
- 34 영어 오디오북
- 35 있어보이는 우리말
- 36 오! 가.작.통
- 38 청년대회란?
- 39 희년이란?
- 40 우리 성지 프사
- 42 성지 부루마블

- 44 보아라찾아라환호하라
- 46 우리들 이야기
- 50 희망의 말씀 순례



말씀 읽기

9월 7일 연중 제23주일 루카 14.25-33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해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23주일 (루카 14, 25-33)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르세요.

- 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②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 ③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 ④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2 복음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와 (), ()와 (), ()와
 (), 심지어 자기 ()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기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요한 3, 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멀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씀 다지기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요한 3.13-17)

1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드높여지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축일 일까요?

- 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 ② 주님 세례 축일
- ③ 십자가 현양 축일
- ④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 복음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적어봅시다.

3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지 느껴봅시다.



말씀 읽기

9월 21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 루카 9:23-26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경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 다지기

성 김대건 안드레아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루카 9,23-26)

1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르시오.

- 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 ② 자기 목숨을 구하려 애쓴다.
- ③ 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 ④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

2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선되는 ‘사랑’, 그 사랑을 한 주동안 실천해 봅시다.



말씀 읽기

9월 28일 연중 제26주일 루카 16.19-31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





말씀 다지기

연중 제26주일 (루카 16, 19-31)

1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인물을 연결해 보세요.

- | | | |
|------|---|--------|
| 아브라함 | • | • 라자로 |
| 모 세 | • | • 예언자들 |
| 이사악 | • | • 죽은이들 |
| 부자 | • | • 예수님 |

2 저승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남겨진 형제들을 위해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3 부자는 살아생전 자신의 대문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라자로를 살피지 않습니다. 요즘 현실에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라자로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읽기

10월 5일 연중 제27주일 루카 17, 5-10

그때에 5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6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8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하고 말하여라.”





말씀 다지기

연중 제27주일 (루카 17,5-10)

1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한 말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루카 17,5)”

① 재산

② 믿음

③ 지혜

④ 축복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나무에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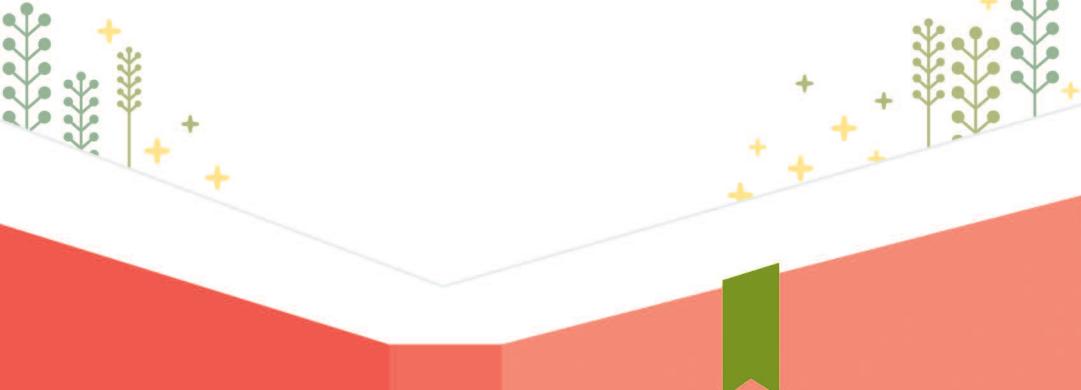
3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극복하고 싶은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또 그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어떠한 기도할 수 있을지 적어봅시다.



말씀 읽기

10월 12일 연중 제28주일 루카 17, 11-19

11 예수님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야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이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28주일 (루카 17, 11-19)

1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 ① 2명 ② 5명 ③ 9명 ④ 1명

2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러 온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일어나 가거라. 네 ()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 19)

3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열 명 중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나 역시 잊고 지냈던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떠올려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아요.





말씀 읽기

10월 19일 연중 제29주일 마태 28. 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29주일 (마태 28, 16-20)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 ① 예루살렘 ② 갈릴래아 ③ 베들레헴 ④ 사마리아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 20)

3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며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느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읽기

10월 26일 연중 제30주일 루카 18,9-14

그때에 9 예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11 바리사이는 꽃꽂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허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30주일 (루카 18,9-14)

1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① 바리사이 ② 레위인 ③ 세리 ④ 사제

2 오늘 세리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아요.

“오, 하느님 이 ()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3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나는 지금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마태 5.1-12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윤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말씀 다지기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마태 5, 1-12-)

1 다음 중 복음에서 나온 사람들의 순서를 올바르게 짹지은 것은?

-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 슬퍼하는 사람들
- Ⓝ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 Ⓞ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적어봅시다.



말씀 읽기

11월 9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요한 2, 13-22

13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말씀 다지기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요한 2, 13-22)

1 다음 중 복음에서 등장한 동물의 순서를 올바르게 짹지은 것은?

- Ⓐ 소 Ⓑ 비둘기 Ⓒ 돈 Ⓓ 양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이 ○○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3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는 친구들에게 성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적어봅시다.



말씀 읽기

11월 16일 연중 제33주일 루카 21:5-19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말씀 다지기

연중 제33주일 (루카 21:5-19)

1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짹지은 것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을 켜 놓고 있어라. ○○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 ① 사람, 국가, 질병, 시련
- ② 국가, 사람, 시련, 질병
- ③ 민족, 기근, 나라, 표징
- ④ 민족, 나라, 기근, 표징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너희는 내 ○○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로써 ○○을 얻어라.”

3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현혹하는 사물이나 마음, 사람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읽기

11월 23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루카 23,35-43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빙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느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 다지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루카 23.35-43)

1 오늘 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 중 구원의 의미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입(口)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 ②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 내는 일
- ③ 아홉 개의 동그라미
- ④ 오래된 동그라미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3개)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빙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이라면 너 자신이나 ○○○해 보아라.”

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거나 체험한 적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말씀 읽기

11월 30일 대림 제1주일 마태 24, 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힘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다지기

대림 제1주일 (마태 24, 37-44)

1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짹지은 것은?

“○○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가 ○○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 ① 모세, 믿음, 모세, 천국
- ② 모세, 재림, 모세, 방주
- ③ 노아, 믿음, 노아, 천국
- ④ 노아, 재림, 노아, 방주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으시오. (3개)

“너희의 ○○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3 복음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혹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양콤한(*^_^*)

TINO 생각

누군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느려도 좋다.

멈추지 않는다면..

[양념] 터노

①



②



③



④



⑤



⑥



당이와 아치

글/그림_이윤식 마르코

(7)



(8)



(9)



(10)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공짜로 얹어냈다고 생각한 물건 값의 대가는
미움 받는 나입니다.

엄청 비싸죠??

영어오디오북

Lamb of God 하느님의 어린양

글 : 감사랑

"하느님의 어린양"은 미사 성찬 전례의 영성체 예식 중 사제가 영성체를 위해 축성된 빵을 쪼개는 동안 교우들이 노래하거나 낭송하는기도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승리하신 어린양으로 찬양하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나됩니다.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us peace.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ANDONG_DUREPAN



있어보이는

우리 말

글 : 어흥

두레판 친구들 안녕?

이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어요. 특별히 9월은 '순교자 성월'로
순교자들의 굳은 신앙과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달이에요.

이번 호에서 함께 배워볼 말씀은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디모테오 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써보며,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아요.

**"Bonum certamen certavi,
cursum consummavi,
fidem servavi"**

보눔 체르타멘 체르타비, 쿠르숨 콘슘마비, 피뎀 세르바비

**"Bonum certamen certavi,
(cursum consummavi, fidem servavi)"**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글 : 김진심

'연합'이라는 말 좋아하니?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늘 고민인 성격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무서워.

그런데 내가 다니던 성당 중고등부는 꼭 이 성당 저 성당 친구들을 모아서 뭔가를 자주 했어!
지구 연합 체육대회, 지구 연합 예술제, 지구 연합 캠프, 지구 연합 산행 같은 걸 정말 자주 했지.

좀 더 먼 성당 다니는 친구들까지 모이는 자리에서는 교구 회장단 모임, 교구 중등부 모임, 고등부 모임 같은 이름으로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한데 모여 이것저것 활동을 했어. 친구 사귀는 게 두렵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걸 다 따라다녔더라고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해 보면 무섭긴 했지만, 좋아했던 것 같아. 몇 번 다니다 보면 익숙한 얼굴도 하나둘 생기고, 또 별거 아닌 활동 같아도 막상 따라 하다 보면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어.

물론 너무 싫어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마음먹은 덕도 있었지. 그런데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건, 우리 집보다 먼 성당에 다니는 낯선 친구들과 '무언가를 같이 한다.'라는 경험 그 자체가 좋았던 걸지도 몰라. 그건 나쁜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동교구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늘 땐 성당 친구들을 섞어놓고 '같이 놀게' 하려고 애쓰셨어. 지금도 여전히 그리려고 하시는 것 같고.

모르는 친구들 혹은 일지만 어색한 애들을 모아놓고 '함께'라는 친근한 부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퍼포먼스, 그것이 어쩌면 '안동교구 중고등부'만의 작은 전통이 아니었을까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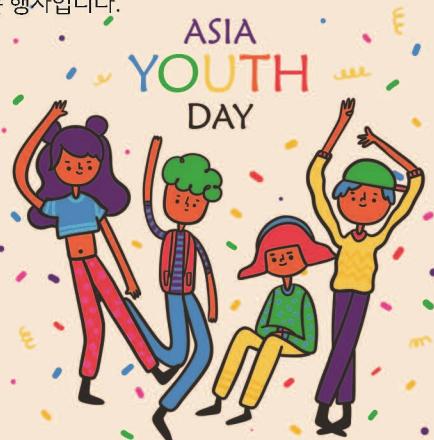
안동교구에서 '연합'이라는 건, 그냥 조직을 둑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함께 하는 것'에 더 의미도 있는 것은 아닐까? 어때? 너는, '연합' 좋아하니?

With 교황님 – 세계청년대회

안녕 친구들!!

이번에는 아시아 청년대회(AYD)에 관해 소개해 줄게요.

아시아 청년 대회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가톨릭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입니다.



1991년, 폴란드, 체스토코바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열렸을 때, 아시아 30개국의 대표자들은 제3세계 청년 포럼에 참석하였고,

1994년에 아시아 주교회의(FABC)는 산하 신자와 가정 사무국(OLF) 아래, 유스 데스크를 조직하여 마침내 1999년 제1회 아시아 청년 대회가 타이의 후아힌에서 개최되었답니다.

1999년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청년대회를 시작으로 2~3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대회가 이어져왔으며, 2001년에는 대만의 타이베이, 2003년에는 인도의 방갈로, 2006년에는 홍콩, 2009년에는 필리핀의 이머스, 그리고 2014년에는 한국의 대전에서 열렸어요.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이때, 제3회 한국청년대회 일정과 함께 치러졌어요.

그 후, 2017년 7차 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으며, 2020년 제8차 대회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대회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한국청년대회(kyd)를 소개해드릴게요^^



희년은 멈추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느님의 초대였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희년처럼
살아가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Q1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내가 조금 착해졌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잖아.”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희년은 ‘나’에서 시작해 ‘우리’로 퍼져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의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Q2 공동체 안에서 희년을 실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함께’ 살고 있어요. 희년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한다는 건, 그 ‘함께’하는 방식을
하느님처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늘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고 있다면, 그
친구 옆에 앉아주는 작은 선택 하나가 희년이에요. 또, 실수한 친구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희년의 얼굴이에요. 희년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느님의
마음이니까요.

Q3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상처가 클수록, 실망이 깊을수록 용서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상처를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것부터
가 희년의 시작이에요. “하느님, 이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이 희년을
여는 열쇠가 돼요. 하느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앞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Q4 공동체 전체가 희년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희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고요. ‘함께
거룩해지는 공동체’,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고, 바로 그 안에 희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호야 신부님's
질문 하나!

“희년이 ‘우리 모두의 새출발’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나요?”

#우리성지 프로필

#세번째 이야기

#안동 교구

#문경 진안리 성지

#대신 가드림

#팔로우, 좋아요, 알림설정

#사진, 글 : 아리



PROFILE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선종지
#천주교 박해
#시복시성

#위치: 36919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0





부루마불 성지

1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1827년 조선의 신학자들이 교황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조선 교회에 성직자를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어느 선교회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브뤼기에게 주교였어요.

그는 “조선 사람들의 경우만큼 절박한 경우는 없다”라며 조선 교회 선교사를 지원했답니다. 이렇게 파리 외방전교회는 1831년 9월 9일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브뤼기에게 주교를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1836년 최초의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 많은 신부가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활동했어요. 박해 속에서도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신학교를 설립하고 성당 건축(명동성당, 악현성당 등), 교육, 의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기틀을 다쳤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 수감자, 병원 환자 등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특수 사목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유럽은 물론 세계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

: 프랑스

- 프랑스 France
- 5,490만 ㎢, 7억 명
- 6,627만 7,409명

2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뒤펼 정원



다함께 1분 순례

GO!

우리에게 파리외방전교회는 특별하셨던 그 분을 떠올리게 되어요. 바로 초대 안동교구 장이셨던 두봉 주교님이세요.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며 농민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신 안동교구의 큰 어른으로 두레판 친구들에게도 너무도 익숙한 분이시죠.

두봉 주교님께서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한 국땅을 밟으셨는데, 파리외방전교회는 파견을 떠나는 신부님 모두 본부 정원에서 파견식을 해요. 이때 동료들이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떠나라! 복음의 군대여, 그대들의 소망을 이를 날이 왔다. 선교사들이여, 그대들의 발자취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친구들이여, 이생에서는 안녕을.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오” 죽음을 각오한 그들이 동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노래입니다.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는 프랑스 파리 7구 뤼드 박(Rue de Bac) 128번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뤼드 박은 우리말로 나룻배의 길이란 뜻이에요. 10여 분만 걸어가면 배를 탈 수 있는 센 강으로 연결된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 길을 통해 항구로 가는 나룻배에 몸을 실어 머나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두레판 친구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선교사분들의 아름다운 별걸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떠나보아요!

다른 그림 찾기



ANDONG_DUREPAN

6월 15일 양업 명상센터(진안리 성지)에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사성 기원미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인 첫 신학생이었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예비 신학생들을 위한 주교님의 안수와 십자가 수여가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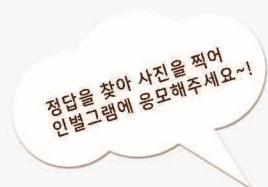
다른 곳 5군데를 찾아보세요.



7월 12일~13일 안동지구 중 고등부 연합 캠프가 진행되었어요!
 정상동, 용상동, 태화동, 송현동, 목성동, 갈전 마티아 친구들과 함께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뒤처지면 끌어주세요”라는 주제로 농은수련
 원에서 즐거운 1박2일을 보냈답니다. 다음엔 다 함께 만나요^^

숨은 그림 찾기

튜브 / JESUS / Fr. 윤여홍 / 달다리 / 부초



송현동 성당



희망의 순례자들

나가사키 성지순례



올 1월에 송현동성당 친구들은 초중고, 청년들이 모여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일본 가톨릭교회의 시초인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상록하면서 시작된 히라도부터

원폭 투하 당시의 참상을 볼 수 있는 원폭 기념관,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자료관 등

나가사키의 여러 성지들을 순례했답니다.

나가사키를 순례하니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와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 당시에 어떤 희망을 꿈꾸셨을까요?





용상동 성당



올해 중고등부 여름 신앙캠프가 7월 12일, 13일에 농은 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본당에서도 친구들이 참석해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인동지구 주일학교 연합으로 진행되어 타본당 친구들과
서로 어울려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캠프에서 받은 기분 좋은 에너지로 올 여름 무더위를 잘 이길수 있을거 같아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미래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입니다!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¹⁾

1) 2019년 1월 27일 제34차 WYD, 파나마 파나마시티

2) 2023년 8월 3일 제37차 WYD, 포르투갈 리스본

말씀의 순례

교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을 활짝 벌리십니다. ²⁾



Republic of Korea



Paris

공지사항

찬미 예수님! 두레판 친구들~
2025년 하반기 일정에 대해 알려줄게요.

- ◆ “중고등부 회장단 하반기 모임” 일정 변경 : 9월 7일(주일)
본당의 중고등부 회장단 친구들은 어서 빨리 신청해 주세요.
- ◆ “2027 서울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10월 12일(주일)
10월에 열리는 ‘초등부 못자리 신양잔치’가 올해는 더 큰 규모로 열립니다.
초등부뿐 아니라 중고등부와 청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행사는 ‘2027 WYD 안동교구대회’를 향한 여성의
출발점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발대 미사에 참여하는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두레판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할게요!
- ◆ 두레판 활동 인증
“있어 보이는 우리말 교본 필사, 복음 퀴즈, 숨은그림찾기, 다른 그림 찾기”
등 두레판 활동을 10월14일까지 인증해 주세요. 인증된 친구 중 10명을
뽑아 선물을 증정합니다~!

#인스타그램 “안동교구 두레판”
http://www.instagram.com/andong_durepan
#사목국 메일 - sa3119@nate.com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36678 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막길 77)